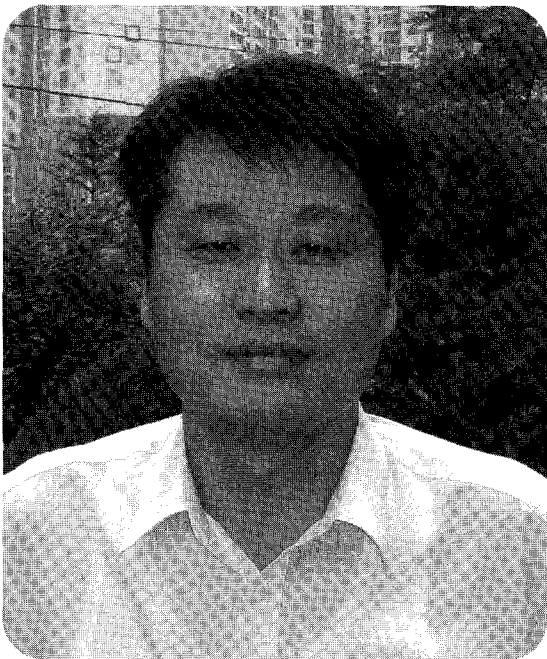


## 회원 단합이 곧 경쟁력이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남상길 지부장

### 군납 참여 비율 높아

고양육계지부(지부장 남상길)는 지난 2003년 2월 26일 고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모여 결성되었다. 고양시 지역에서 육계를 하는 회원들은 연간 350여만수의 닭을 생산하고 있으며, 육계와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시는 지역적인 특성상 회원중 절반정도가 군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열화 참여비율이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1/3은 토종닭을 사육하고 있다.

고양시 지부는 군납을 하는 물량이 월 7만여톤으로 개인농장 물량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금년은 계약단가도 kg당 1,600원으로 높게 책정된 요인도 군납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

### 경쟁력 향상 비결은?

남상길 지부장과 김현섭 총무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다져진 고양시 지부는 사육 규모면에서 타지역 보다 작지만 육계 경쟁력 면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 않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약수정에서 북시즌을 앞두고 회원들의 권익과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윤영 축협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부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고양시지부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는 고양시(시장 강현석)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의 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에서 실무



7월 6일 고양육계지부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화합을 다지고 있는 회원들(왼쪽 뒷줄 다섯번째부터 민군홍 이사, 남상길 지부장, 8번째 김윤영 고양 축협 조합장)

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철 농업정책 과장의 열성적인 업무추진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남상길 지부장은 고양시지부를 설립하면서 고양시청, 농업기술센터 및 축협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감보로 백신공급, 깔짚구입, 소독약 공급, 환경 미생물제제 공급, 소독조 설치를 함에 있어 시로부터 50%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금년 여름 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쉼 지원을 요청한 결과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추경예산을 세우면서까지 180대분의 쉼을 양계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는데 남지부장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1개 농가당 300여만원의 지원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남지부장은 분석하였다.

또한 고양지부는 토종닭 종계와 육계 종계를 하는 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우량한 병아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방역의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농가에 차량소독조가 설치될 정도로 방역망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고양지역이다. 설치가 안된 농장은 시의 지원을 받아 금년내에 100%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남 지부장은 설명하였다. 또한 농가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지 않으면 타 농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월례회의에서 만난 회원농가는 질병의 기미가 보이면 질병이 완전히 물러날때까지 소독 및 다양한 질병 퇴치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방역의식이 배어 있었다.

남상길 지부장은 경기도 일산구 법곳동에서 5만수규모의 양계를 경영하고 있다. 남지부장은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고양시지부 회원들은 이러한 단합된 힘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항상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